

경제신문 스크랩 양식

헤드라인 (요약과 압축)	MS·구글, 적과의 동침?...AI안전표준 개발 위한 업계협의체 구성
기사링크	<a href="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727002600091?input=1195m">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727002600091?input=1195m</a>
본문 (본문 내용 복사)	<p>(샌프란시스코=연합뉴스) 김태중 특파원 = 인공지능(AI) 기술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 분야 선두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(MS)와 구글이 손잡고 업계의 안전 표준 개발에 나섰다.</p> <p>MS와 구글은 26일(현지시간) 오픈AI, 앤스로픽과 함께 AI 기술 관련 안전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체인 '프런티어 모델 포럼(Frontier Model Forum)'을 출범했다고 밝혔다.</p> <p>오픈AI는 MS와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는 챗GPT 개발사이고, 앤스로픽은 구글이 지원하는 AI 기업이다.</p> <p>'프런티어 모델 포럼'은 책임 있는 AI 모델 개발과 안전성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 방안 도입 등을 목표로 한다고 구글은 설명했다.</p> <p>협의체는 또 AI 기술과 영향력, 한계 등에 관해 대중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입안자 및 학계 등과 AI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로 했다.</p>

아울러 기후 문제와 암 치료 등 사회 전체 과제 해결을 위한 앱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.

협약체는 가입 자격을 제한해 가장 발전된 대규모 머신 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AI 기술의 안전에 헌신하는 기업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.

MS와 구글의 이 협약체 구성은 미 의회에서 AI 규제를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나왔다. 미 상원에서는 AI 규제와 활용 등에 대한 포괄적 입법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.

백악관도 이들 기술 기업이 AI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표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.

지난 21일 구글과 MS 등 7개 주요 기업은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안전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기로 한 바 있다.

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"이번 조치는 업계가 책임감 있게 AI를 발전시키고 과제를 해결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중요한 단계"라고 말했다.

기사 내용의  
수치화, 인사이트

추가조사할  
내용 또는결과

- AI의 위험성
- 자동화된 사이버 공격, 화학 무기 합성 등 AI의 무기화
  - AI로 생성된 잘못된 정보, 가짜뉴스의 확산과 범람
  - AI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및 사회적 가치를 희생하게 되는 ‘프록시 게임’ 현상
  - AI 의존으로 인한 인간의 능력 약화
  - AI가 소규모의 사람들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권력 집중
  - 인간의 고급 AI에 대한 통제력 상실
  - AI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간들에게 숨기는 기만
  - AI가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

요약 및 의견 <b>for</b>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	<p>핵심정보 : MS와 구글이 AI 안전표준 개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.</p> <p>상세 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MS와 구글은 26일(현지시간) 오픈AI, 앤스로픽과 함께 AI 기술 관련 안전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체인 '프런티어 모델 포럼(Frontier Model Forum)'을 출범했다.</li><li>2. 이번 조치는 업계가 책임감 있게 AI를 발전시키고 과제를 해결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중요한 단계</li></ol>
적용할점 (현직자에게 할 질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AI 기술의 부작용 없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글로벌적인 기준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.</li></ul>
연관기사 링크	<a href="https://www.ekorea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7232">https://www.ekorea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7232</a>